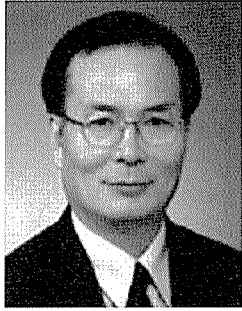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신뢰제고 대책



심성근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장

1. 우리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전략물자관리는 국제무역질서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진 무역 대국으로 가는 길에 복병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떠한가? 국가별 수출통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공표하는 기관은 미국 조지아대학의 국제무역안보센터(CITS)가 유일하고, 유엔안보리 1540위원회

가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먼저 CITS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통제에 대한 평가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통제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정부당국이 산업계와 일반 公衆들에게 이행 공감대를 이루면 그때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게 보장된다. 겨우 약 20업체가 수출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한다지만 가까운 장래에 수출통제를 채택할 업체는 충분치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증가 요인도 주로 다국적기업들의 내부 자율준수 노력에 기인하였다. 대부분의 한국 관리들이 재래식무기로 인한 위협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보다 중요시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의 전략과 대량파괴무기 능력에 대해 확산의 잠재적 위협을 잘 알고 있다. 보다 광범위해지는 확산 우려보다는 눈앞의 위협 때문에, 한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대량파괴무기를 수출통제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압력과 동맹관계 때문에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상업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급기술 제품에 확산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의 관계당국들은 수출통제의 비용과 혜택을 따져 본 후,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그러한 이해가 수출통제 비용부담보다 절

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행해야한다고 확인한다. 확실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한국은 직접 또는 경유형태로 확산우려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제공자로 기여한다고 비치고 있다.

수출통제에 대한 10개 요소에 걸친 93개 질문을 이용하여 한국수출통제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했다. 10개요소는 법체계와 허가체계, 정부의 절차, 국제수출통제협약의 철저한 준수여부, 통제목록, 훈련, 세관과 협조, 이행여부 점검, 형사처벌과 행정과태료, 캐치올 통제, 정보수집과 교환이며, 평가 방법은 수출통제 정책의 입안, 절차, 이행요건들을 심사했다. 이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한국은 72.33점이였다.」 일본의 97.92점, 미국과 EU는 90점대, 타이완 88.51, 우크라이나 85.79, 아르헨티나 85.76, 체코 84.53와 비교할 때 무역의존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결코 좋은 점수가 아니다.(주1) 그러나 이 평가는 2000년 2월 자료로서 최근 우리나라가 노력을 기울인 개선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정부와 무역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수출통제 준수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으며, 준수 기업에게 '수출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EU의 움직임은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것이 선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2004.4월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하여 1540호를 결의하였고 1540위원회는 금년 4월까지 각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기 위하여 분석 및 사실 확인 중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진흥에만 관심을 쏟고 국제안보를 위한 무역질서인 효과적인 수출통제체제에 소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무역대국이란 자량이 오히려 이미지 실추로 퇴색될 수 있다. 국제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신뢰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무역 상대기업으로서 외면당하게 된다.

2. 우리의 생각과 국제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인 NSG(핵공급그룹), MTCR(미사일통제체제), 생화학무기 통제를 위한AG(호

주그룹), 바세나르협약에 이미 가입하였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는 신사협정(Gentlemanship Agreement)이라는 점에 자율적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정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고 인식한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EU도 신사협정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유럽 의회에 의해 EU법률의 특별조항에 국제수출통제의 법적 구속력을 반영하고 있다. 주2) 최근 2년 동안 산업자원부는 「수출통제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개별적 형편에 불구하고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해 왔다.

우리 대기업들이 이에 수긍하고 자율준수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경영여건과 전문인력이 없어서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외국의 중소기업들도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도 중견 대기업 못지않게 수출통제에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국제사회에서 무역제재를 당하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자발적 이행이요, 자율준수이다. 일본은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이 3,000개가 넘고 IT, 기계, 화학, 소재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중소기업까지 스스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 貿易船의 航海路에 浮遊魚雷가 있다면 그 위험을 식별하는 것을 무역을 하고 있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시키거나 피하면 안 된다.

수출통제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의 인식하는 시각도 선진국과 우리는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기업, 국가의 안보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공급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며, 법 이전에 사회적 책임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통제물자 공급능력 면에서 뒤진 것으로 평가받는 루마니아는, 정부 내 輸出統制局이 산업계의 이행정책을 추진하여 2001.1월부터 4년만에 EU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폴란드도 수출통제국이, 기업의 수출통제 내부자율준수체제를 정착시키고 ISO시리즈 표준(9001: 2001)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EU수준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U시장에서 유럽국가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어 수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狀況인식으로 국제기준을 따르는 데 서두르고 있다.

이미, 수출통제가 자율적 선택사항이라는 개별적 오해 소지에 중지부를 찍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가 2004.4월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기업 내 담당조직, 예산, 전문지식, 경험, 자료가 없어 지키기 어렵다는 개별적 사정이 우세하고,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최고 경영자가 많다. 이런 사실들이 걱정스럽다.

각국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1540위원회는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첫째, 비확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정책의지, 입장발표, 가입여부 등. 둘째, 생화학무기, 핵무기의 생산, 획득, 보유, 개발, 운송, 사용, 공범참여, 지원, 자금조달, 우려자와 관계(involve)에 대한 통제, 위반자 처벌의 법제화. 셋째,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의 생산, 사용, 저장, 수송, 계량, 제단계의 방호, 관련시설의 물리적 방호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수단, 법규, 허가, 시설의 신고, 취급인력, 점검의 신뢰성, 국가의 조직, 관련물자의 데이터베이스. 넷째, 국경통제와 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중개통제, 규정대로 이행 여부 점검 및 집행, 물자와 기술판매에 지원, 허가 형태, 허가 중 관계부처 협의, 통제리스트, 기술의 포함여부, 리스트의 개정사항 반영, 최종 사용자 분석, 캐치올 규정, 무형적 이전, 통과(경유), 환적, 재수출, 자금조달 통제, 운반용역 통제, 환적, 수입통제, 역외적용, 허가면제, 다섯째, 상기 관련정보의 제공가능, 통제리스트(물자, 장비, 소재, 기술), 지원요청과 제공, 산업 및 일반에게 정보제공 등

우리는 이제 겨우 「기업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지출」로 인식하고 지출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면 지키겠다는 자세다. 대기업은 국제질서에 걸릴 위험성과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지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수긍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실상과 정책의지에 대하여 1540위원회가 어떤 점수를 매길 것인지 염려스러우며 국가적 어젠다

로서 이행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 국제 신뢰제고 대책

환정보전이 질서로 부각되면서 기업이 폐수를 내보내면 법 이전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듯, 안보를 해치는 경영형태는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해 기업 경영자, 정부 정책결정자, 일반국민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고 이행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1540위원회가 평가하는 요소로 앞에서 열거한 첫째 항목은 우리나라가 모든 국제협약에 가입했고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APEC, ASEM 등 각종 다자간 회의에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협력 선언에 동참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기대된다. 그러나 둘째 이후 요소들은 법제화부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 물자 생산 및 유통 관리실태 파악,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 기업의 이행부담감 설득, 기업의 인식과 자세를 바꿀 수 있는 홍보, 우리현실에 맞는 관리체계 설계, 경험이 없는 전체 기업에 대한 이행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 점검 및 위반자 처벌,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 관련 통제지침과 대상을 매년 수정하는 연간 20회 이상의 국제회의의 참석, 우리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에 대한 의견 수립 및 분석능력,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안보 위협성과 비교하여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국내 정책에 반영, 효율적 행정을 위한 기업지원 정보 제공,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바세나르등 국제체제별로 운영하는 온라인망을 이용해 실시간 검색과 보고의무를 수행하는 행정체제로 개편, 국제사회에 우리의 수출통제 신뢰성을 알리는 일, 수출통제 정보 및 기법에 대한 국제협력, 관계부처와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이 분야 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일을 이행해야 할 시간도 많지 않다. EU, 미국 등 선진시장이 수출통제를 잘 지키는 기업위주로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려는 공인경제운영자제도가 채택되어 3년 후면 준비되지 않은 국가나 기업에게는 무역장벽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책은 단기적으로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업들이 무역제재를 예방하고 3~4년 중장기적으로는 선진시장의 무역원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준수기업인증제 도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행의지가 있는 기업을 최소 비용으로 손쉽게 준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법,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기업의 이행체제에 선결되어야 할 각종 지침, 품목별 통제사유, 통합통제목록 작성 등 핵심자료를 분석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짧은 기간에 이해와 제도준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공동기획, 모범 이행기업의 사례, 관계자와 대학이 참여하는 논문 공모, 적은 수의 전문가와 기업·정부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협조 네트워크 강화로 폭넓은 참여에 의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우선 민감한 품목부터 자율준수제도가 도입, 정착되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자율준수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3천이 넘었고 기업인증에 의한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비하여 경제산업성이 인증한 455개업체의 자주관리기업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우리는 수출통제가 무역진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관심자체가 저조하였었다.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선진국이 50여년에 걸쳐 이룩한 이행수준을 단시간에 뒤쫓아 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기울였어야 할 노력을 벌충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역량과 지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정부조직으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지만 1~2년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을 유지하기 힘든 우리는 수출통제 품목별 분석요원 등은 전략물자관리원(가칭)을 신설하여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현재 국제사회에 공개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평가시점이 6년이나 지난 만큼 최근 개선한 내용이냐 정부?기업의 인식과 노력에 자신감이 있다면 CITS에 변모된 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

정부 보도자료 목록

No	제목	Source	Date
1	2월 디지털전자 수출 14.2% 증가로 호조세 지속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3-06
2	CEO의 생생한 기술과 산 경험, 대학 강단으로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3-06
3	대학에 지역혁신센터 지정, 10년간 지원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3-02
4	무역위 16개 도시에서 무역구제 세일즈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3-02
5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3-02
6	디자인을 토대로 지역경제, 환경개선의 전기 마련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8
7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확대 지정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8
8	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8
9	전문 포털 만들어 무역구제 활성화 도모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8
10	외국 R&D 센터 유치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선정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8
11	제3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시상식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7
12	ATC 과제 지원기업 성과 분석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7
13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30대그룹으로 확대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7
14	10대 수출산업별 "수출현장으로 해소점검 지원단" 운영활성화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3
15	서해 2-2광구 탐사시추 현황 및 신중투자 요망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3
16	2005년도 에너지 수출입 및 소비동향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3
17	산자부, 유전개발펀드 도입방안 확정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3
18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출범식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3
19	한.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 창립총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2
20	한국형 제조혁신(i-메뉴팩처링) 사업 추진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2
21	버려지는 대기전력' KS로 잡는다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2
22	기표원 '한국 주도 유비쿼터스 국제표준화 회의'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1
23	美메릴랜드대 '신뢰성 분교' 한양대에 설립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1
24	전략산업 전문 창업투자조합 등 전력IT 사업계획 마련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25	가자! 중소기업현장속으로!!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26	남아공 월드컵 조달시장 진출 시장개척단 파견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27	작년 가스사고 109건 전년비 1% 감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28	산업현장에 필요한 공학교육방안 모색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29	최근 이란정세 대응 에너지수급 점검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30	중국에 기술협력거점센터 17일 개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20
31	제주 Daum 글로벌 미디어센터 오픈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6
32	기후변화대책 CEO 간담회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6
33	청정생산기술로 국내산업 환경경쟁력 제고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6
34	전자의 날 제정 및 전자수출 3000억불 비전 제시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6
35	기계산업계 경영애로 청취 및 사기양양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6
36	06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확대 추진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4
37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T/F팀 발족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3
38	05년 서비스 수출입 동향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3
39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 개최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3
40	향후 주거시설 설계시 고효율 배려토록 설계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3
41	세녹스는 불법 최종판결 따른 단속대책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3
42	"중소수출기업 챙기기 - 산업별"수출현장으로 해소점검지원단"구성 운영'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0
43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06년 1,520억원지원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0
44	기후변화대책주간 행사 개막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0
45	주요 업종별 투자활성화 대책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0
46	전략시장의 효율성 제고 워크샵 개최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10
47	전략물자 수출통제 워크샵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09
48	기업들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폭 확대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08
49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08
50	家電 감소... 반도체는 10%대 증가 선전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06-02-07